



#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18 호

2013년 3월 1일 발행

작년 10월 캐나다 성공회에서 프레드 힐즈 수좌 주교와 폴 휘리 부제가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샌다이 사무실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남, 또한 그들의 안내로 신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 지역 방문 후 두 분이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 청년들의 힘찬 모습. 땅에 발을 붙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직자, 신도 스태프들. 것처럼 공포와 피해를 당하고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신지 사람들. 그레이스 나카소 준코 씨. 후지 유치원, 구 원 건물 말 할 수 없는 ” 정적과 침묵, 그리고 아이들 환성에 싸인 신 원 건물 ” 신생과 희망 ” 의 대비는 매우 선명하고 강렬하지만, 실로 신학적인 통찰력을 주었다. 우리,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 프레드 힐즈 수좌 주교 ”

“ 귀국 후, 저는 10월 21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유치원 교사이고, 성공회 신도였던 나카소 준코 씨가 원생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지만, 원아들과 함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회중은 꿈쩍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 폴 휘리부제 ”

곧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2년의 날을 맞이합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행보는 피해 지역과의 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어 “지금”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지금” 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케이트]**  
프로젝트가 만난 한분 한분의 지금

## 홈 헬퍼 2급 자격 취득지원

재류 외국인 피해자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의

# “지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2 년이 경과한 지금, 지금까지 임시 주택 지원, 재택 이재민 지원, 외국인 지원, 장애인 지원 등으로 만난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텝도 설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질문 1. 지진 전과 지금의 자신의 내면적 변화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센다이시** 아무일 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과의 연결이나 인연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노마키** 지진 이전 살고 있던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미래의 꿈,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진 후 이 참상을 보는 것이 힘들어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반면 자신까지 도망간 뒤의 지역이 더 **꿈이 없는 지역이 된**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가마이시** 피해자끼리라는 **이상한 동료 의식**이 싹터 자신도 놀랐다. 돕는 마음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센다이 · 재외국인** 저는 지진과 해일 6 개월 전에 센다이로 이사 왔습니다. 잘 모르는 나라에서의 체험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진 이후 많은 동료가 생겼습니다.

I arrived in Sendai 6 months before the great earthquake and tsunami. I didn't know the place well; there was much confusion and stress. A year after the earthquake I met lots of friends.

**나토리** 나날이 유리아게 부흥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행동 자체가 태만해 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네요.

**신지** 지진 때마다 **불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나토리** 지진 전에는 가족 6 명이 있었지만 빨리 자신 집에 들어가 즐거운 매일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진**하게 되었습니다.

**게센누마** 집과 고향을 잃은 상실감은 **2 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연한 때에 기억이 납니다.

**게센누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 인가? 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그 세대에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서**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있다.

**게센누마** 가족을 잃고, 슬퍼 할 수 만든 없기 때문에 이후 살아 가는 것에 여러가지 의미에서 **강해** 지고 있다.

**야마모토** 아이가 좋아 유치원의 직원이 돼어, 소중한 어린이를 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아이들과 접하고 있었지만, 지진을 거쳐 **생명의 무게**와 책임의 무게를 강하게 느끼고 자신이 이 일을 계속 해도 좋은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큼니다.



**다가조 · 재외국인** 지진 때문에 항상 방재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아이의 일을 걱정합니다**.

Just because I experience the Tsunami & Earthquake, I always preparing a Bosai goods Just for incase the tsunamis come...

**게센누마** **정신적으로** 피로가 생겼다.

**가마이시** 자신의 집이 아닌 탓에 파트 뒤에 집에 돌아가고 **진정되지** 않습니다.

**게센누마** 집 유실에 따른 기분이 없다는 것의 **불안감**이 있다.

**봉사자** 마음 속에서 행복 ...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살아서 좋았던 것일까. 더 소중한 사람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은 아닐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것인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에게 미안하고 사람의 고통을, 괴롭고 힘들음을 느끼게 되었다.



**봉사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도 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 기도는 말로 될 수도 있고. 기도는 수행으로 될 수도 있다. 이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은 결코 지진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봉사자** 실제로 피해 지역에 가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 “죽음”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그 쌓임이 미래지만 이 나라의 미래 전망이 보인다.

**질문 2. 지금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꿈과 즐거움 등의 “희망”하지만 기대와 요구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게센누마** 미소가 넘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다.

**다자쵸·재외국민** 장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모자 가정이 되어, 두 **아이들의 성장**이 나의 희망입니다.  
ang graduation ng anak at pagpasok nug ng coko. then my daughters well grow up a pleasant for me.

**나토리** 가설에서 **잔잔한 일상**을 되찾은 것. 지금도 꿈 같은 사건 같지만 유리아게에 가보니 현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 왔습니다.

**나토리** 지진 전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에서 **모두 돌아가**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센다이** 우리는 반드시 지진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꼭 **극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가마이시** **1년 후** 어떤 생활이 될까 기대와 불안합니다.

**신지** 현재 살고있는 임시 주택도 정든 여러분과 교류도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만, 희망은 빨리 **자신의 집**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토리** **부흥 주택**을 몇 년 무렵 지을 수 있는지 기대됩니다. 하루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시노마키** 지역의 생업의 부흥과 함께 이 **지역 사회와 전통의 부활**에 기대를 걸고 활동을 하는 동료들과의 대화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지** **매일을 즐겁게**, 좋아하는 여행 등을 하며 지내고 싶다.

**게센누마** 집에 피해를 입은 친척이 쉴 새 없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 커뮤니티**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평소 생활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센다이·재외국민** 가능하면 앞으로도 여러가지 **배우고 싶다**. 말 뿐만이 아니라.

**센다이·재외국민** 센다이에 아직 7 개월 정도입니다만, 앞으로 많이 일본어를 공부해, 일을 제대로 해 **좋은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람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센다이·재외국민** **일하고 싶습니다**. 토호쿠에 있는 필리핀 사람이나 다른 외국인의 그룹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I want a job.I want to unite the Filipinos and foreign migrants in tohoku region.

**게센누마** 게센누마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

**봉사자** 피해지의 한분 한분의 **희망하는 삶**이 된다면.

### 질문 3. 지진 이후 가장 기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토리** 같은 동네 사람들과 **가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던 것.

**나토리** **예배**에 참석 할 수 있었던 것.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간 것.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나토리** 아이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웃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받은 것. 지금 저는 **“웃음 이 복구 · 부흥의 근원점”** 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센다이 · 재외국민** 여러 사람과 만나 **여러가지를 배우고**,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나토리** 오토바이를 태워 주고, 또한 미니 콘서트, 훌륭한 가성에 감동하고, 다 **셀 수 없는 만큼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부드러움,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가장 기쁘게 생각 했습니다.

**게센누마** **아이의 탄생**. 지진 후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격려,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먼 곳의 친구들로부터 물자와 격려의 말이 기뻐했습니다.



**이시노마키** **미역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나가 미역을 많이 베어 해변에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다 ...! 그때 모두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두 열심히 해서 좋았습니다.

**신지** 쓰나미로 쓸려갔다고 생각한 손자가 건강한 것. 항상 지원자의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준다고 생각해 **혼자가 되지 않았다**.

**가마이시** 색종이. 장기 연맹 회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니다.

**오기노메 요우코**로부터 CD 를 받았 습니다. (편집주 ※이분은 오기노메 요우코씨의 오랜 팬으로, 그녀의 블로그를 보기 위해 도서관에 갔을 때에 피해, 목숨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마이시** **친구**(멀리 사는 친구도 포함)와의 인연이 깊어 졌다.

**신지** 그 **추운 날씨**에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식사, 의류 등 주신 것이 가장 기뻐다.

**야마모토** 유치원이 재개. 어린이들과 만나 **웃음을 볼 때** ...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가마이시** 지원 센터에서 많은 분들과 만남, 지원 받고 있고, 서로 격려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들어 달라고 부드럽게 따뜻한 말을 걸어 준 것 등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게센누마** **둘째 아이 탄생**.

**봉사자** 재해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 주신 것. “당신.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라고 마음 속에서 생각한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활동 속에서, 고통, 슬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움직이는 생각과 행동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 주신다는 증거를 곁에서 체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본 것.

동일본 대지진 2주년 기념 성찬식 · 별세자 기념기도 오후 2시 46 분 묵상

2013년 3월 11일 오후 1시부터, 토호쿠 교구 "동일본 대지진 2주년 기념 성찬식 · 별세자 기념기도"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 소중한 사람과 장소, 물건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분 한분 부디 이날을 기억해 주세요.

- ◆장소 고리야마 성베드로 성바우로교회 (후쿠시마)
- ◆사식 토호쿠교구 주교 요한 가토 히로미치
- ◆주최 일본성공회 토호쿠교구
- ◆설교 사제 프란시스 하세가와 키요즈미
- ◆협력 「함께걷자! 프로젝트」



## 질문 4. 기타

(즐거웠던 일, 재미 있었던 일, 어려운 일, 놀란 것은, 전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자유롭게)



**신지** 지진 후 만난 사람들 ... 이런 일이 없었으면 분명 만날 수가 없었던 **국 내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센다이·재외국민** 가장 즐거웠던 것은 JLPT (일본어 능력 시험)를 보았습니다. 겨우 일본에 와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 있는 동안에, 즐거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물려서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 꿈 “**지지바바 공화국**”건국

**가마이시** 담화실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온 분들을 알았고, **지금까지 몰랐던** 시내의 것 등을 알고 놀라기도 했다. 연장자가 많고, 지식도 풍부해서 공부가 됩니다.

**봉사자** 지진 1 개월이지나, 재해지에서 보고, 텔레비전이나 신문과의 큰 차이에 놀랐다.

**360도 비참함.** 차로 달려도 달려도 변하지 않는 풍경. 진흙과 조수가 섞인 바람의 냄새. 거기에서 처음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람의 힘은 작은 것을 잊지 않고, 핵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는 망상과 대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등, 자만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시노마키** 아무것도 없이 몸만의 피난 생활 속에서 일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모든것이 고맙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나토리** 주 1 회 **쇼핑에 데려 가는 것이 즐겁다.** 식료품, 의류품 등 보고 견고, 사고, 운동도 되고, 눈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 재미있다. 이 차량도 언제까지 계속 될지 걱정입니다. 어려운 점은 방이 좁은 것.



**게센누마** 지금까지 게센누마를 몰랐던 사람들이 **지진을 계기로 관심을** 가져 준 것.

**봉사자** TV 보도는 **진정한 재해지의 모습**을 전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통해 이재민 특히 해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초조감은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주위에 알려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흥 작업에 도움 싶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 이소야마 바다의 달빛 속에서 **“야광충”을 다시보고 싶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예배가 그림고 생각난다.

**이시노마키** 성공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역 작업**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게센누마** 피해를 입은 분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피해가 없잖아”라는 말을 종종 던지고 있다. **마음의 피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가마이시** 지진 후 자위대가 만들어 주신 **텐트 목욕.** 낮선 사람과 빵을 절반씩합니다. 라며 나눠 먹은 빵의 맛. 신에 목욕 타올을 받고 **어떤 고급 호텔보다** 고맙고 멋진 욕실이었습니다.



**게센누마**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작은 목소리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 가설 분들이 굉장히 바빠, 우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치면서 원진 문제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분도, 괴롭네요. 신지의 닭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분들과 많은 자원 봉사자들과의 교류가 기대됩니다.

## ■계센누마 (미야기) / 홈 헬퍼 2 급 강좌

계센누마의 재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홈 헬퍼 2 급 자격 취득 강좌 수료식을 1 월 25 일에 실시했습니다. 회장은 무로네 성 나다나엘 교회. 자격증 수여식에 산코우 복지 대학 분들과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던 계센누마 시청 직원 분들도 와 주었습니다. 일본어 교실에서는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좌학 및 실기 연습 단위를 얻기 위해, 원래는 산코우 복지 대학에 다니지 않으면 안되지만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으로, 특별히 계센누마시 회장에 침대 및 간이 화장실 등 필요 장비를 반입해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없으면 도저히 실현하지 못했을 자격증 취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에는 7 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이미 2 명은 시설에서 권유가 오고 있어 자격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신지 (후쿠시마) / 오르간 부활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에서 연주했던 발로 밟는 오르간이 수리되어 예배당에 돌아 왔습니다. 100 년 전에 만들어진 오르간으로 지진 전부터 수리 이야기가 있었습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희생된 성도의 마음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예배당과 오르간이 남겨진 것을 중요시 받아 들여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쿄교구 신도들의 큰 응원도, 자신도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가쓰 오르간에 수리를 의뢰. 그리고 1 월 6 일, 훌륭하게 수리된 오르간 과 함께 임시 예배당에서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할 수 있었습니다.



## ■신지 (후쿠시마) / 매월 11 일의 기도

신지 베이스에서는, 매월 11 일에 실시하는 “기도 순례”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파손되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성당과 해일로 원아와 교사를 잃은 “후지 유치원” 구 원 청사 등을 지역 주민과 자원 봉사자와 함께 방문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때내려간 집 흔적을 똑바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 활동기록 (1/6~2/5)

### 가설지원

- 떡치기 대회 / 가마이시
- 요리모임 / 가마이시
- 노래모임 / 가마이시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 ◆햏코나 (오차회) / 신지
- ◆햏시네마 (영화회) / 신지
- ◆지압맛사지 / 신지
- ◆햏코리카페 / 이와키시

그 외에도 ... 신년회 해외 연주가 방문, 가설 방문, 스트래퍼 제작을 즐기는 모임, 체조 교실 등

### 장애자 지원

- ▲상품구입지원, 판매지원 / 센다이시 (마도카)
- ▲작업보조 / 계센누마시 (히마와리)

### 외국인 지원

- ▲개별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간행물의 해설, 직업 소개소 등 동행, 기타) / 이시노마키시, 다카쵸, 센다이
- ▲영어회화 교실 개강 도움 / 나토리시, 센다이
- ▲홈 헬퍼 2 급 자격증 취득 강좌 / 미나미산리쿠
- ▲일본어교실 / 센다이시
- ▲회복프로그램 / 센다이시

### 기타

- ▲나자렛, 아오바 등 물자 정리 / 센다이
- ◆도호쿠헬프에 식품 등의 방사능 측정 의뢰 / 센다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기타 여러현에 있어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반 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18 호 2013 년 3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 ~ 금 10 : 00 ~ 17 : 00

CLOSE 토 · 일 · 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mailto: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

헌금을 보내 주시길 경우는 이쪽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 우체국 00120-0-78536 (가입자 이름 일본 성공회)